



●●● 한국남동발전(주)

허엽 사장

가치창조 · 혁신과 성장 · 소통과 신뢰의 이념아래 세계수준의 에너지공기업으로 발전을..

한국남동발전(주)은 사회공헌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편리한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다.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가치창조 ▲혁신과 성장 ▲소통과 신뢰의 이념 아래 허업 사장을 중심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세계수준의 에너지공기업으로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사장님의 경영방침 및 취임 후 역점분야와 성과

제가 남동발전의 CEO로 취임한 이후 처음부터 경영방침으로 제시한 것은 '가치의 창조', '혁신과 성장', 그리고 '소통과 신뢰'입니다.

'가치의 창조'는 공기업으로서 남동발전이 가진 최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발전 공기업으로서 국가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정적 전력공급, 지속성장을 위한 수익 창출과 함께, 정부3.0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

한국남동발전(주)

허업 사장

◆ 주요학력

- 1972. 02: 오현고등학교(제주) 졸업
- 1976. 02: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1983. 02: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관리 경영학 석사

◆ 주요경력

- 1978. 08: 한국전력공사 입사
- 2008. 12: 배전처 리비아사업팀장
- 2009. 12: 배전운영처 계량기술팀장
- 2010. 05: 영업처 수요관리팀장
- 2012. 05: 광명지사장
- 현재 한국남동발전(주) 사장(5대)

최근 남동발전 주요 실적

- 2013. 05: 분당복합 연료전지(308MW) 2단계 준공
- 2013. 0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2년 연속 기관·기관장 A등급 달성
- 2013. 11: 국가품질대상 대통령표창 수상
- 2014. 03: 본사이전(경남 진주시 경남혁신도시)
- 2014. 05: 코리아비디오테어워드 대상 수상
- 2014. 05: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
- 2014. 06: 영흥화력 5호기 준공
- 2014. 06: 대한민국 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 2014. 11: 영흥화력 6호기 준공
- 2014. 12: 여성7업지원 유공단체 대통령상 수상 (공공기관 최초 수상)
- 2015. 02: 대한민국 사회공헌7업 대상 수상
- 2015. 03: 장부 동반성장실적 경영평가 3연패 달성
- 2015. 04: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선정
- 2015. 04: 공공기관 정부30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5. 06: 경남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전산업 육성지원 공동협력 협약체결



정림 아이스버킷 챌린지(2015. 02)

**'가치의 창조', '혁신과 성장',
그리고 '소통과 신뢰'**

**'생산성향상', '창조혁신3.0',
'혁신경영', '동반성장' 실행지침'**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까지를 널리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혁신과 성장'입니다. 앞서의 목표인 가치와 창조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수행전략입니다. 창조적 혁신의 내재화를 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장을 위한 구성원의 역량을 전략적으로 제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며 앞으로 남동발전의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내적 문화의 뿌리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소통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통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튼튼한 조직도 없습니다. 구성원과 이해관계자의 자유로운 쌍방향 소통은 조직을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견고하게 합니다. 저는 늘 임직원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서로를 믿으며,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동발전은 2001년 창립 이후 크게 발전해 왔으며, 제가 취임 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성장했습니다.

남동발전의 최대 현안 및 추진방안

2013년 말부터 남동발전의 키워드는 실질적인 경영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생산성향상 ▲창조혁신3.0 ▲혁신경영 ▲동반성장을 실행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체감할 수 없이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영성과 제고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모든 사업방향 결정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칩니다. 본래 임무에 충실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으

로 우직하게 전진한 결과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치 당기순이익인 333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분야에서 1위, 발전원과 유연탄 조달단가도 화력발전사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핵심적인 경영역량에서 국내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남동발전 모든 임직원이 남동만의 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핵심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동발전은 ‘글로벌파워리더’를 비전으로 삼고, 그 핵심가치인 △가치창조 △열린사교 △도전정신 △사회공헌을 가슴 속에 새겨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진취적인 도전정신과 책임의식,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지를 가진 직원은 남동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라고 믿습니다.

7월 들어 남동발전은 하절기 전력피크를 앞두고 차질 없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점검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은 수도권 유일의 기저부하형 발전소로서 수도권에 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 설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산업은 현재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 뿐 아니라,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선진 국가들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 여부는 국가의 미래성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현재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전략사업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사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제한된 에너지 자원으로 효율적인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저희 남동발전은 세계 수준의 운영능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과 네팔 등지에서 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력은 강력한 맨파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세계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독려하며 지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정한 HRD는 당연한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급히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를 위하여 일관된 개발·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인큐베이팅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 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위기관리 능력으로 조직을 보호하고, 위대한 도전자 정신으로 반복해서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 데이터를 자산화 하여 조직의 역량으로 조직화 하는 시스템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제가 주장하는 ‘꿈을 꾸는 자’이고, 그런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환경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조직’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들도 다 하는 ‘안전한 답’이 아니라,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 하는 “최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적·물적·구조적 환경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늘 주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정신이야말로 제가
주장하는 ‘꿈을 꾸는 자’**

**꿈을 꿀 수 있도록 격려하는
환경이야말로 ‘미래지향적 조직’**



남가람 에코 파워토피아 조성 공동협력 협약식

진주혁신도시로 지방이전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 상생협력방안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저희 남동발전은 지난 2014년 3월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경남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이전을 하기 전부터 지역 활성화 및 동반성장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사전 조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일,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 추진을 위한 발전산업 육성지원 공동협력 협약 체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협약식에는 경남도청, 진주시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 등 총 13개 기관단체장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협약은 산업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확산계획’에 부응한 것으로,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등 정부3.0 정책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전기관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협약서에 따라 ‘남가람 에코파워토피아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저희는 앞으로 10년간 1조1,0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발전과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지자체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발전산업분야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남가람 에코파워토피아 추진계획에는 전력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등과 연계한 대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미래에너지 기술, ICT융복합기술, CO₂ 저감기술 등 친환경 기술, 고효율/저비용 발전기술, 발전운영 고도화기술 분야의 국책 및 중소기업 협력연구과제 수행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가람 에코파워토피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인하여 지속발전을 위한 경제적 잠재력이 크게 증가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펀더멘털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방이전 후 직원복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지방이전 후 제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것이 직원복지입니다. 공공기업으로서 예산지원을 통해 복리후생을 증가시키는 데는 어려

움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은 경영정상화 이후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오히려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직원들이 새로운 생활터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이제는 스스로 진주지역에서 주말을 보내는 예가 많이 늘었고, 가족이 모두 함께 이주하는 직원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미흡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남동발전은 모든 임직원들이 진주생활에 익숙해지고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주요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저희는 수출촉진 5대 중점전략을 선포하고,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지원하는 55개 우수중소기업의 수출목표를 1억6천만 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남동발전과 KOTRA가 수출협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희가 설립한 G-TOPS를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독보적인 해외수출 플랫폼을 완성하고, 해외협력파트너를 확대하는 한편, 수출전문 인력을 보강해 보다 활발한 해외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경상대학교 특강

이밖에 해외플랜트를 대상으로 한 수출 시범화사업을 확대하고, 해외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시장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GEN-CO 브랜드 웨어링 및 통합수출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글로벌 브랜드의 웨어링을 활성화하고 벤더등록과 해외규격인증 등 통합 수출지원 사업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공기업 최초로 중견기업 육성사업인 KWC-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 대상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산업계 강소기업 30개를 발굴하여 R&D, 해외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매출규모 1,5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히트 챔피언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모 및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한 중견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에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기업의 니즈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 당 8억 원까지 지원하여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지난해 나이지리아 액빈발전소 설비개선 기자재 납품 등에 성공하였고, 올해도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G-TOPS를 통한 수출목표를 5백만 달러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해외 현지 신규 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RPS 이행실적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동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원별 균형발전과 경제성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환경과 기술·개발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투자전략을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규제순응 차원이 아닌 적극적인 미래사업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최다 석탄화력을 보유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탄력적 바이오 혼소를 시현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오 적정비율을 유지하고 연료전지와 해상풍력 등 대용량 신재생 발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육·해상풍력을 적극개발하고 O/E, CM 및 O&M 수행을 통한 기술선점을 주도하는 한편, 경쟁력을 향상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SOFC 연료전지 등 차세대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미래 회사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영흥화력 7,8호기의 사업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 5월에 영흥화력 5,6호기 종합준공을 통해 수도권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7,8호기를 착공하여 수도권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7,8호기 사업은 다른 곳과는 달리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확인되었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유치하려고 노력할 만큼 우수한 시설이었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해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7,8호기 건설이 수도권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검토하여 지혜로운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문화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1978년 전기엔지니어로 한국전력에 입사한 이래 중소기업지원팀장과 서울지역본부장, 제주지역본부장, 그리고 개발사업본부장을 지내는 등 줄곧 전기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기산업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하나인

220V 승압사업의 중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보람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전기인으로서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재는 2013년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경영인으로서 전기산업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현장중심의 경영과 함께 목표 지향적이며 실무중심의 단순하고 명료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는 오랜 엔지니어 생활로 인해 자연스럽게 몸에 익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판단이 단순하고 의사전달이 단조로울수록 명확하고 신속하게 의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기인으로서의 삶은 제 생활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문화대상은 우리나라 전기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뜻 깊은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저는 전기인으로 헌신해 온 뜻 깊은 시간을 반추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기문화를 창달하고, 에너지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년간 전기인으로서 한길만을 걸어오셨습니다. 후배 전기인을 비롯한 대국민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대학(大學)에 의하면, 옛날 탕왕은 세수대야에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窮則變 變則通(궁즉변 변즉통)” 이라고 하여 어려움을 겪으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된다고 하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에너지원과 지속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발달과 함께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세계적 에너지 기업들의 노력은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청정화력연료의 개발, 에너지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등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너지 산업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 유망기술을 조속히 확보하고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하우와 경험 축적을 위한 자체기술 자산화 체계의 확립도 절실합니다. 또한, 기술력을 실질적인 산업화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한 신규 사업 기회 탐색의 필요성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기인은 주어진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로만 생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창조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려는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전기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의 경계가 무너지듯이 기술과 산업의 경계도 흐려집니다. 동종의 기술이 융합하고 이종의 지식이 합쳐져 새로운 시대정신을 만들어 냅니다. 이전의 선입견에 갇혀 새로운 것에 눈 뜨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항상 주변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고, 주변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 에너지산업 발달을 위해 스스로를 닦는 노력에 더욱 열정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